

공동체 소식



연중 제13주일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 안내: 한국 교회는 해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이나 이날과 가까운 주일을 교황 주일로 지냅니다. 이날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 주간의 성인

- 7/3(화) : 성 토마스 사도 축일
- 7/4(수) : 독립기념일
- 7/5(목)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미사 : 7/7(토) 오전10:00,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미사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Table with 5 columns: Day, 시작, 예물, 성체, 파견. Rows for 금주 and 차주.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Day, 항복사, 시종복사. Rows for 금주 and 차주.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Day,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금주 and 차주.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Day, 봉사자. Rows for 금주 and 차주.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Day, 봉사자. Rows for 금주 and 차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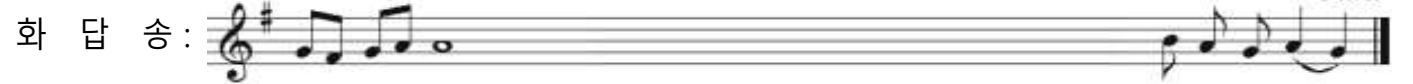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의 신비로 우리에게 온갖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삶과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힘차게 전합시다.

그림 묵상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시자, 아이는 곧바로 일어나 걸어 다닙니다. 죽은 이도 살리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지나간 삶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신비의 삶을 살아가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제 1 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13-15; 2,23-24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8,7.9.13-15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 줄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21-43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생명의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르 5,30)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와 열두 해 동안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 두 기적 이야기는 마태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 두 기적 이야기 앞에 나오는 큰 문맥을 살펴보면, 세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 뒤에 '마귀들과 돼지 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하혈병 여인 치유와 회당장 딸 소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자연 현상'이나 '더러운 영'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넘어 당신의 권능이 펼쳐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직후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기다려온 '세상적인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 가는 도중에 열두 해 동안 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에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하고 물으시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날 문화에서는 프라이버시에 해당할 내용을 굳이 드러내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의한 '매직' 같은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과 의인격적 관계에 바탕한 믿음의 결과임을 드러내 주시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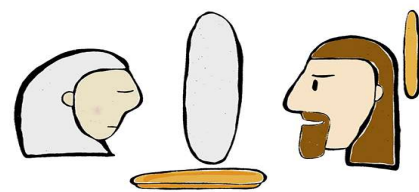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우리 역시 '자녀들을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시고', '가족들이 직장에 턱하니 합격하게 해 주시고' 등등 여러 가지를 청하게 됩니다. 사실 나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 청원기도는 꼭 필요하고 합당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도 실상 일곱 가지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하지만 아쉬울 때에만 하느님께 손 내밀다가, 아쉽

지 않을 때는 세상 기준에 따라, 세상 삶에 매몰되어 신앙의 참된 정수를 놓치며 살기를 예수님은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던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영광을 가져다줄 메시아'만 필요로 하는 그런 '기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심'(1독서)을 깊이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무능하게 돌아가심'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의인격적 만남을 깊여가라는 초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한다.
 다른 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직접' 준다.
 나의 몸과 피를
 내가 너에게 전한다.
 내가 너에게 '직접' 전한다.
 나의 사랑을.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마르 5,4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교황님과 아버지

먼저 미천한 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하느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전례력을 살펴보니, 7월 첫째 주간에 교황 주일이군요. 저는 '교황님'들의 인자한 모습을 떠올리면, 바로 제 아버지의 '함박웃음'이 덩달아 떠오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초기였던 1984년 설 연휴 때, 아버지는 거나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서 "교황님이 올해 우리나라에 오신다네~!" 하시면서 '함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까지 아버지는 교회나 절에 가신 적이 한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좀 의외이긴 했지만 반갑고 따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교황님을 존경하고 계셨으며,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험하게 야단치거나 때리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점심 식사를 꼭 집에 돌아와서 하신 후 한숨 주무시고 난 후, 다시 일터로 나가시기까지 1시간 남짓은, 아버지의 자전거를 몰래 타보는 신나는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깜빡 1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혈레벌떡 돌아오는 동네 길사거리에서 아버지는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저를 한 대 때리려던 아버지의 손은 저 아래 제 종아리로 내려가서 하나도 아프

지 않게 살짝 때리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아까워하시는지를 절감한 순간이었지요. 세상을 떠나신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아버지 손길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소중한 여기신 자식들을 키우신다 손에 굳은살이 박이신 아버지의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신비한 사랑임을 지금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하느님이 한없이 너그럽고, 저를 믿어주시고, 제 잘못도 쉽게 용서해주시고, 저를 아깝고 소중한 자식으로 여기시는 분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수록 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랑의 배고픔'에 시달리는지를 절감합니다. 그 고품은 우선 부모가 적절히 채워주지 못해서 생긴 '사랑의 배고픔'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첫머리 때까지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두 번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랑을 항상 목말라합니다. 그런 '사랑에의 목마름'은 오직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정진민 세례자 요한 | 가톨릭상담심리사

교리상식



교리상식

미사주는 아무 술이나 괜찮나요?

미사주는 아무 술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주로 사용하는 포도주는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포도주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구할 수가 없을 때)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다른 술로도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제가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을 때는 포도즙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포도주 중에도 '붉은 포도주'여야만 하나 하는 의문도 생기겠지만, 붉은 포도주를 사용하면 성작 수건에 붉은 흔적이 남아 세탁이 쉽지 않아서, 사목적인 편의에 따라 백포도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